이수진(2023). 부부간 역할분담과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 자녀양육기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1), 53-65.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3.27.1.005

부부간 역할분담과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 자녀양육기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변화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Role Divi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Changes in the Work and Commute Times of Dual-Income Couples Engaging
in Childrearing in Japan after the COVID-19 Pandemic

일본 弘前大學 교육학부
준교수 이 수 진**

Faculty of Education, Hirosaki University, Japan
Associate Professor Lee, Sujin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자녀양육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가정 및 가족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등의 변화가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제3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활의식·행동의 변화에 관한 조사. 2021」 데이터이다. 20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면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취업자인 총 983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은 남편의 역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감소는 남성의 역할분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은 부부간 역할분담보다 더욱 명확하게 남편과 부인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보다 남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가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노동시간, 통근시간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Japanese families engaging in childrearing to discover changes in their daily lives, such as in the role divi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hours spent on housework and childcare, caused by the unexpected crisis of COVID-19. An empirical analysis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such as working and commuting hours, affected the role divi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as well as housework and childcare hours spent. The data analyzed were extracted from

*본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8S1A6A3A04042721), 2022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저자, 교신저자: 이수진(pourtant22@gmail.com), http://orcid.org/0000-0001-6104-6967

the 2021 “3rd Survey on Changes in Lifestyle Awareness and Behavior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conducted by the Japanese Cabinet Office. A total of 983 couples aged 20 or older, living with their spouse, having at least one child under the age of 18, and both employed were selected.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husband and wife changed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husband's role in housework and childrearing. Second, the decrease in working and commuting hours increased the husband's role. Third, housework and childcare hours were more clearly related to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s of husbands and wives than to changes in role divi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In conclusion, changes in men's working and commuting hours had a greater impact on role division, as well as housework and childrearing hours in the family, than changes in women's working and commuting hours. In the future, an analysis that considers labor market factors is necessary.

Key words : COVID-19 pandemic, Role divi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Working time, Commuting time

Ⅰ.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가족은 일과 가정생활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 및 가족생활의 변화양상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은 일하는 방식의 하나인 재택근무의 증가와 이로 인한 재택시간의 증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증가 등이다(통계청, 2021; 한국 갤럽조사연구소, 2021). 이와 더불어 가족의 재택시간의 증가는 가사 및 돌봄노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사 및 돌봄노동의 총량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족의 재택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관리, 소독, 외출 후의 의류관리 및 세탁 등의 가사노동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강화되거나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 Panasonic Webmagazine(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생활시간 영역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영역이 가사이며 많은 사람들이 가사의 총량을 줄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혜림(2021)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있어서 두가지 측면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할 일이 늘어나서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과 가족원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다른 가족원들이 가사에 익숙해 지면서 부담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유경(2021)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사노동이 늘어나게 된 원인으로 가족원이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가사노동 요구가 증가하였다는 점과 집이라는 공간에 직장 및 학교가 들어와 직장의 업무와 학교의 학습, 돌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직장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식사와 돌봄, 학습관리, 생활관리 등이 가정의 역할에 추가되게 된 점을 지적하였다. Panasonic Webmagazine(2022)에서는 가사부담이 증가한 요인으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일상적인 가사에 더해서 집안 환기 및 소독, 재택근무 및 재택학습 등으로 가족원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가족원의 점심준비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하게 된 가사가 늘어난 것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반면, 筒井(2022)의 연구에서는 외출제한, 학교의 휴교 조치 등의 코로나 대책에 따라 가족의 재택시간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사 및 돌봄노동의 총량이 늘어났지만, 부부간의 분담에는 현저한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한편, 가사노동에 비해서 돌봄노동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체 사회에 돌봄 공백 및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그 부담은 그대로 개별 가족에게 전가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보육 및 교육기관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시행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 시간과 수고를 가중시키게 되었다(崔喜晶, 2022; 허민숙, 2022).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직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 지침의 하나로 긴급사태 선언이 선포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실시한 조사에서 여성의 30%, 남성의 25%가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内閣府, 2021a).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한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늘어난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은 누가 담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노동시간, 통근시간 등의 변화가 남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가, 여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가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가사 및 돌봄노동의 여성 편중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 특히 남편의 장시간 노동이 지목된 바 있다(이현아・김주희, 2021; 허수연・김한성, 2019; 허수연, 2008).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존재해 온 가사 및 돌봄노동에 있어서의 성불평등을 감안할 때, 남녀차이에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남성보다도 여성에 큰 타격이 있다는 지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부터 있었다. 일본의 内閣府(2021b) 보고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유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의 가사

분담 비율은 약 70%, 남성의 가사분담 비율은 약 30%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육아 분담 비율은 약 70%, 남성의 육아 분담 비율은 약 35%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 19 상황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 눈에 띈 것이 젠더 관점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갑자기 취해진 학교 휴교 조치 등으로 늘어난 가사 및 육아 등 돌봄 노동을 고려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중립적이 아니라 많은 경우 여성에 더 많은 부담이 되고 표면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가 일상생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분석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자녀양육기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가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생활 변화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실시된 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부부간 역할분담변화,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시된 연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분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진미정 외, 2020; 濱貴子 et al., 2022; 原美和子, 2021; Panasonic Webmagazine, 2022; UN Women, 2020). 구체적으로 가사분담의 증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보고되고 있다. 진미정 외(2020)의 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사노동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여성 43.1%, 남성 23.9%인 것으로 나타났고, 濱貴子 et al.(2022)의 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사부담감이 증가했다는 남성의 응답비율은 25.0%, 여성의 응답비율은 34.6%였다. 실제적인 가사분담 비율을 0~30%, 40~60%, 70~100%로 나누어 보았을 때, 남성의 66.5%가 0~30%라고 응답하고 있었고, 여성의 68.8%는 70~100%로 응답하고 있었다. Panasonic Webmagazine(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남편이 가사에 할애하는 비율은 약 25%였던 것에 반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31.8%로 약 7%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부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약 43%였던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1.3%로 약 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UN Women(2020)은 'UN Women Rapid Gender Assessment Surveys'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노동의 부담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60%의 여성과 54%의 남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사노동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石橋, 武田 & 谷口(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남성의 가사비율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여성의 가사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시간의 증감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진미정 외(2020)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3.19시간에서 3.56시간으로 증가하였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31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濱貴子 et al.(2022)에서는 가사시간이 증가했다는 남성의 응답비율은 26.1%, 여성의 응답비율은 40.6%로 차이를 보였다. 原美和子(2021)에서는 남성의 19%, 여성의 28%가 가사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하였다. 유배우자의 경우, '자신은 증가했는데 배우자는 변화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13%로 남성의 6%보다 많았다. '자신은 변화없으나 배우자는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10%로 여성의 4%보다 많았다.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의 가사시간이 남성보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이 밝혀졌다. 여성의 경우만을 살펴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미영, 2022; 이태 · 안준홍,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돌봄노동의 추이에 대해서 보면,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돌봄노동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이경숙 · 이지인 · 정영태, 2020; 진미정 외, 2020; Del Boca et al, 2020; Oreffice & Quintana-Domeque, 2021). 또한, 가사분담과 마찬가지로 돌봄노동 부담에 있어서의 남녀차이도 보고되고 있다. 진미정 외(2020)에서 남성의 경우 35.6%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녀돌봄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63.9%가 자녀돌봄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이경숙 외(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돌봄노동시간의 증가나 감소 등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남성 43.2%, 여성 34.6%로 나타나 돌봄문제에 있어 여성이 더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Del Boca et al.(2020)의 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추가된 가사 및 자녀돌봄의 대부분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reffice & Quintana-Domeque(2021)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돌봄과 가사일을 더 많이 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요리,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주당 9.2시간 더 많은 29.3시간 담당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이전보다 남녀격차는 조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시간의 증감을 살펴보면, 진미정 외(2020)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2.70시간에서 3.66시간으로 증가하였고, 남성의 자녀돌봄시간은 1.80시간에서 2.14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외

(2020)의 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평균 돌봄시간은 345분에서 744분으로 6시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간 돌봄시간의 차이는 55분에서 148분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돌봄시간과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돌봄역할이 더 가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UN Women(2020)의 보고서에서 누가 더 많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했는가에 대해서 56%의 여성과 51%의 남성이 자신의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石橋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돌봄노동부담이 여전히 큰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돌봄노동시간으로 보면, 여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주당 26시간이었던 것이 31시간으로 증가하였고, 남성은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부부가 가사와 자녀돌봄을 균등하게 분담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들이 있다. Carlson, Petts & Pepin(2022)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남성이 가사 및 자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가사 분담이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여성이 주로 가사를 담당한다는 응답비율이 64%에서 47%로 감소하였고, 자녀돌봄에 대해서는 50%에서 36%로 감소하였다. 가사를 동등하게 분담한다는 응답비율은 27%에서 42%로 증가하였고, 자녀 돌봄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분담한다는 응답비율은 45%에서 56%로 증가하였다. Sevilla & Smith(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남녀 모두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남성의 돌봄노동의 절대시간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石橋 et al.(2021)에서는 가사 및 자녀돌봄을 수행하는 시간대에 주목한 결과, 남성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였고, 특히 야간에는 남성와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점을 밝혀냈다. 즉, 야간에 자녀돌봄에 시간을 할애하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Del Boca et al.(2020)의 연구에서 자녀돌봄 활동은 가사 활동보다 부부 내에서 더 균등하게 공유된다는 점도 밝혀냈다. Yerkes et al.(2020)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와 자녀돌봄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남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 수행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있다. Xue & McMunn(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여성은 남성보다 돌봄노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태와 안준홍(2022)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기혼여성 중에서 전업주부의 평일 돌봄노동 시간이 소폭 증가한 것에 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 안미영(2022)의 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여성의 돌봄노동시간이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과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노동시간변화에 주목하여

노동시간의 변화가 가사시간 및 돌봄시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가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유라 · 송운기 · 김성훈, 2022; 장진희, 2021; Zamberlan, Gioachin & Gritti, 2021).

장진희(2021)의 연구를 보면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간은 2.2시간 감소하였고, 자녀돌봄시간은 1.8시간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의 노동시간 감소분은 1.6시간이었는데 자녀돌봄시간은 6.7시간 증가하였다. 즉 여성은 노동시간의 감소분보다 더 긴 시간을 돌봄노동에 투입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유라 외(2021)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확률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Zamberlan et al.(2021)의 연구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본인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태와 안준홍(2022)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근로시간 증가는 가사노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돌봄노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미영(2022)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성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활동상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大久保(2020)의 결과를 보면, 텔레워크 이용 그룹은 텔레워크 미이용 그룹에 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가사, 돌봄노동, 간호 및 간병 등의 가족원의 보살핌 시간의 증가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워크를 통한 통근시간 절약 등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손연정(2022)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의 시간 활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재택근무자가 비재택근무자에 비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응답비율이 남성의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일과 생활의 분리가 남성에 비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간과 돌봄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Zamarro & Prados(2021)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돌봄노동시간이 길고, 돌봄노동의 부담도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Craig & Churchill(2021)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노동시간은 약간 줄어든 반면, 가사 및 돌봄노동과 같은 무급노동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Zamberlan et al.(2021)에서는 노동시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부부의 육아 중 65%~70%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남성의 돌봄노동시간은 부부의 돌봄노동시간의 50%를 차지하였고, 여성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여성의 돌봄

노동시간은 부부의 돌봄노동시간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의 돌봄노동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장진희, 박건와 이동선(2022)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성이 기존에 지니고 있는 돌봄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강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발생한 돌봄공백은 여성의 양육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Zamarro & Prados(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학령기 자녀가 없는 여성과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여성 사이에, 심리적 스트레스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격차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Xue & McMunn(2021)에 따르면 집안일과 자녀돌봄에 오랜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은 심리적 고통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일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심리적 고통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사시간 및 자녀돌봄시간, 부부간 역할 분담이 증가 혹은 감소 등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가져 온 요인으로 노동시간의 변화,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통근시간의 변화 등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의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일본 내각부가 코로나19 확산 직후부터 네차례에 걸쳐 실시한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생활의식 및 행동의 변화에 관한 조사』 중 「제3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활의식·행동의 변화에 관한 조사. 2021」 데이터를 조사자료로 이용한다. 본 조사는 온라인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각각의 조사는 전국의 15세 이상 남녀 10,128명을 조사대상자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회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20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면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취업자인 총 983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각 조사의 실시시기를 보면, 제1회 조사는 2020년 5월, 제2회 조사는 2020년 12월, 제3회 조사는 2021년 4월~5월, 제4회 조사는 2021년 9월~10월에 실시되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제안하는 만연방지 중점 조치 및 긴급사태 선언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2021년 4월~5월에 실시된 제3회 조사는 긴급사태 선언 중에 실시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의식 및 행동은 코로나 19 팬데믹 직후에는 급격하게 변화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게 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제3회 조사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 평균(M)과 표준 편차(SD) 등의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이 부부간 역할분담과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STATA 16.0를 사용하였다.

4.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표 1〉)

〈표 1〉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일과 생활에 관한 의식 변화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12월)과 비교해서 귀하의 ‘일과 생활 중 어느 쪽을 중시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 1. 코로나19 확산 전보다도 생활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 2. 코로나19 확산 전보다도 일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 3. 변화없음 으로 분류함
노동시간 변화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12월)과 비교해서 노동시간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12월)의 노동시간을 100으로 놓고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노동시간이 20% 감소했을 경우 「80」, 노동시간이 1.3배 증가했을 경우 「130」으로 표기합니다. 최고치를 「200」으로 놓고 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 1. 감소 2. 변화없음 3. 증가 로 분류함
통근시간 변화	“코로나19 확신 이전(2019년 12월)과 비교해서 일주일 동안 통근에 걸린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라는 질문 1. 감소 2. 변화없음 3. 증가 로 분류함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부부간 역할분담 변화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12월)과 비교해서, 가사·자녀돌봄에 관한 부부간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라는 질문 1. 남편 역할 증가 2. 부인 역할 증가 3. 부부 모두 역할 증가 4. 부부 모두 역할 감소 5. 부부 역할분담 변화 없음 으로 분류함
가사 및 육아시간 변화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12월)과 비교해서 가사·자녀돌봄시간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12월)의 가사·자녀돌봄시간을 100으로 놓고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가사·자녀돌봄시간이 20% 감소했을 경우「80」, 가사·육아시간이 1.3배 증가했을 경우 「130」으로 표기합니다. 최고치를 「200」으로 놓고 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 1. 감소 2. 변화없음 3. 증가 로 분류함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83)

변수		빈도(%)
성별	남성	559(56.9)
	여성	424(43.1)
연령계층	20대	99(10.1)
	30대	426(43.3)
	40대	379(38.6)
	50대	79(8.0)
학력	고졸 이하	202(20.6)
	전문학교 · 단기대학	251(25.5)
	대졸 이상	530(53.9)
고용형태	정규직	712(72.4)
	비정규직	271(27.6)
가구 연간소득	600만엔 미만	373(37.9)
	600만엔 이상 800만엔 미만	279(28.4)
	800만엔 이상	331(33.7)
본인 연간소득	300만엔 미만	359(36.5)
	3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371(37.7)
	600만엔 이상	253(25.7)

주1) 연령계층: 19세 1명은 20대로, 60대 이상 6명은 50대로 분류함.
고용형태: 정규직과 회사임원은 정규직, 비정규직·자영업·가내공업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함.
주2) 2021년 4월 30일 기준 환율 100엔당 1030원. 예를 들어 600만엔은 61,800,000원 상당
주3) 일본 厚生労働省(2020)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553만엔.
본 연구는 맞벌이 가구를 분석대상자로 하였으므로 전체가구보다 가구당 연평균소득이 다소 높음.

〈표 2〉에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성별을 보면, 남성 56.9%, 여성 43.1%의 분포를 보였다. 연령계층은 30대 및 40대가 가장 많았는데, 각각 43.3%, 3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10.1%, 50대는 8.0%였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고졸 이하, 전문대학·단기대학이 각각 20.6%, 25.5%를 차지하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했는데, 정규직 72.4%, 비정규직 27.6%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규직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연간소득을 보면, 600만 엔 미만은 37.9%, 600만엔 이상 800만엔 미만은 28.4%, 800만엔 이상은 33.7%로 나타났다. 본인 연간소득은 300만엔 미만 36.5%, 3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37.7%, 600만엔 이상 25.7%의 분포를 보였다.

2. 분석결과

1)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부부간 역할분담과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1)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 변화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사 및 자녀돌봄에 대한 역할분담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표 3참조〉. 전체적으로 '남편 역할 증가'라는 응답비율이 '부인 역할 증가'라는 응답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남편 역할 증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27.2%, '부인 역할 증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6.6%인 반면, 여성은 '남편 역할 증가'는 20.3%, '부인 역할 증가'는 17.7%로 나타났다.

〈표 3〉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 변화

(단위: 빈도/%)

		남편 역할 증가	부인 역할 증가	부부 역할 증가	부부 역할 감소	변화 없음	합계	χ^2
전체		238 (24.2)	112 (11.4)	75 (7.6)	6 (0.6)	552 (56.2)	983 (100)	
성별	남성	152 (27.2)	37 (6.6)	49 (8.8)	4 (0.7)	317 (56.7)	559 (100	33.182***
	여성	86 (20.3)	75 (17.7)	26 (6.1)	2 (0.5)	235 (55.4)	424 (100)	

***$p<.001$

(2)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전체적으로 보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은 38.8%,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은 13.6%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했다는 남성의 응답비율은 37.6%, 여성의 응답비율은

40.3%로 나타났다. 한편,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이 감소했다는 응답비율도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변화

(단위: 빈도/%)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		감소	변화없음	증가	합계	χ^2
전체		134 (13.6)	468 (47.6)	381 (38.8)	983 (100)	
성별	남성	71 (12.7)	278 (49.7)	210 (37.6)	559 (100)	2.524
	여성	63 (14.9)	190 (44.8)	171 (40.3)	424 (100)	

2)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과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효과

(1)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에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이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에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5 참조〉.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과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의 실제적인 시간량 변화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항로짓분석의 준거집단은 부부 역할분담에 변화가 없는 그룹이다. 먼저 남성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간 변화의 효과는 노동시간이 감소했을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근시간 변화의 효과는 통근시간이 감소했을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생활의식 변화의 효과를 살펴보면,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화없음 그룹에 속할 확률보다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에 있어서 노동시간 감소의 효과보다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의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근시간 감소의 효과는 노동시간 감소의 효과 및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의식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부부 역할 증가 그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의 통근시간이 감소한 경우와 증가한 경우 모두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3배와 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노동시간의 변화는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경우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화없음 그룹에 속할 확률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경우에는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일을 중시하게 된 경우, 부부간 역할이 부인에게 더 많이 배분되는 관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연령계층, 학력, 고용형태, 가구 연간소득, 본인 연간소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기간에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간 변화의 효과를 보면,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한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2.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여성의 통근시간이 감소한 경우와 증가한 경우 모두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근 시간이 감소한 경우에는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4.4배, 통근시간이 증가한 경우에는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3배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을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화없음 그룹에 속할 확률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연령계층과 고용형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50대에 비해서 20대의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8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에 비해서 정규직일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역할 증가 그룹과의 관계를 보면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여성의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이 감소할 경우,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각각 2.5배, 4.6배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고졸 이하 학력에 비해서 전문학교·단기대학 학력의 경우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5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남성 (ref: 부부 역할분담 변화없음)						여성 (ref: 부부 역할분담 변화없음)					
		남편 역할 증가			부인 역할 증가			남편 역할 증가			부인 역할 증가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연령계층 (ref: 50대)	20대	.934	.630	2.545	-.188	1.371	.829	-1.943	.764*	.143	.744	.930	2.104
	30대	.712	.437	2.040	.741	.819	2.099	-.947	.610	.388	.579	.858	1.785
	40대	.324	.428	1.382	.471	.814	1.601	-.562	.609	.570	.400	.869	1.491
학력 (ref: 고졸이하)	전문학교/단기대학	.060	.392	1.062	.999	.770	2.716	.050	.430	1.051	-.778	.459+	.459
	대졸 이상	-.058	.317	.944	.916	.673	2.450	-.136	.450	.872	-.223	.447	.800
고용형태 (ref: 비정규직)	정규직	.641	.571	1.899	.906	1.133	2.474	1.122	.390**	3.071	.482	.419	1.619
가구 연간소득 (ref: 8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486	.380	1.626	-.346	.586	.707	.009	.447	1.009	-.466	.491	.627
	600만엔 이상 800만엔 미만	.161	.308	1.175	-.056	.499	.945	-.214	.439	.808	-.405	.467	.667
본인 연간소득 (ref: 600만엔 이상)	300만엔 미만	-.196	.562	.822	.914	.908	2.494	1.226	.841	3.406	.094	.855	1.099
	3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109	.328	.896	.698	.524	2.010	.670	.779	1.954	.071	.770	1.073
일과 생활의식 (ref: 변화없음)	생활을 중시	1.336	.246***	3.802	1.511	.427***	4.530	1.236	.327***	3.442	.519	.354	1.681
	일을 중시	.560	.628	1.751	2.034	.762**	7.644	-.133	.767	.876	.569	.731	1.766
노동시간 (ref: 변화없음)	감소	.499	.278+	1.648	.126	.482	1.135	.378	.356	1.459	.908	.360*	2.479
	증가	.500	.321	1.649	.631	.495	1.880	.954	.440*	2.595	.127	.576	1.135
통근시간 (ref: 변화없음)	감소	1.575	.280***	4.830	1.102	.458**	3.011	1.484	.429**	4.412	1.516	.440**	4.551
	증가	.684	.559	1.981	1.645	.659**	5.180	1.151	.603+	3.161	.611	.698	1.842
상수		-3.147	.742***	.043	-5.887	1.479***	.003	-2.504	1.007*	.082	-2.090	1.165+	.124
Log likelihood		-465.786						-354.425					
LR chi2(df)		188.57(48)***						129.69(48)***					
Pseudo R^2		.168						.155					
N		517						355					

+$p<.10$, *$p<.05$, **$p<.01$, ***$p<.001$

〈표 6〉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사 및 자녀돌봄 |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남성 (ref: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변화없음)						여성 (ref: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변화없음)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연령계층 (ref: 50대)	20대	.607	.949	1.835	.998	.581†	2.713	.931	.868	2.536	.693	.680	2.000
	30대	.596	.642	1.816	.670	.388†	1.954	.558	.763	1.747	.639	.607	1.894
	40대	.530	.625	1.698	.194	.375	1.213	.356	.775	1.427	.715	.610	2.043
학력 (ref: 고졸이하)	전문학교/단기대학	.048	.502	1.049	-.035	.367	.966	-.685	.458	.504	-.190	.365	.827
	대졸 이상	-.365	.421	.694	-.047	.296	.954	-1.053	.516*	.349	.412	.370	1.509
고용형태 (ref: 비정규직)	정규직	-.457	.603	.633	.266	.529	1.305	-.824	.494†	.439	-.104	.328	.902
가구 연간소득 (ref: 8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667	.501	.513	-.107	.340	.898	-.804	.540	.447	-.601	.384	.551
	600만엔 이상 800만엔 미만	-.039	.429	.962	-.139	.274	.870	-.388	.524	.679	-.508	.369	.602
본인 연간소득 (ref: 600만엔 이상)	300만엔 미만	1.427	.669*	4.166	-.663	.536	.515	-.034	1.034	.967	.123	.695	1.131
	3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804	.444†	2.235	-.207	.294***	.813	.423	.969	1.527	-.400	.637	.671
일과 생활의식 (ref: 변화없음)	생활을 중시	1.021	.340**	2.777	1.129	.227	3.094	.581	.413	1.788	1.048	.278***	2.852
	일을 중시	.857	.691	2.356	-.013	.630	.987	.706	.710	2.025	.077	.691	1.080
노동시간 (ref: 변화없음)	감소	1.663	.408***	5.279	.572	.259*	1.772	1.609	.430***	4.997	.599	.296*	1.820
	증가	1.825	.452***	6.201	.445	.304	1.560	1.245	.515*	3.472	-.482	.435	.618
통근시간 (ref: 변화없음)	감소	1.034	.383**	2.814	1.308	.268***	3.700	.783	.482	2.187	.198	.358	1.219
	증가	.859	.641	2.361	.210	.544	1.234	1.112	.669†	3.041	.052	.633	1.053
상수		-3.376	.922***	.034	-1.660	.658*	.190	-1.601	1.217	.202	-.954	.899	.385
Log likelihood		-422.449						-315.804					
LR chi2(df)		153.65(32)						85.57(32)***					
Pseudo R^2		.162						.119					
N		520						356					

$^{\dagger}p<.10$, $^{*}p<.05$, $^{**}p<.01$, $^{***}p<.001$

(2)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이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의 변화가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표6 참조〉. 다항로짓분석의 준거집단은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변화가 없는 그룹이다. 먼저 남성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간 변화의 효과를 보면, 남성의 노동시간이 감소한 경우와 노동시간이 증가한 경우 모두,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5.3배, 6.2배로 나타났다. 통근시간의 효과를 보면, 남성의 통근시간이 감소하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과의 관계를 보면, 역시 남성의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남성의 노동시간이 감소할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1.8배 높아졌고, 남성의 통근시간이 감소할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3.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생활의식에서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을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화없음 그룹에 속할 확률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을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은 변화 없음 그룹에 속할 확률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본인 연간소득이 300만엔 미만 혹은 3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일 경우, 600만엔 이상일 경우에 비해서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일 경우에 600만엔 이상일 경우에 비해서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19%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계층의 효과도 확인되었는데, 50대에 비해서 20대 혹은 30대의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각각 2.7배,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의 노동시간이 감소한 경우와 노동시간이 증가한 경우 모두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함없음 그룹에 속할 확률보다 각각 5배,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통근시간이 증가하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력과 고용형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고졸 이하에 비해서 대졸 이상의 경우 .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6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일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5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과의 관계를 보면, 일과 생활 의식변화 중에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을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화없음에 속할 확률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노동시간이 감소할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1.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자녀양육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등의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노동시간과 통근시간 변화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의식 및 행동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급격하게 변화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게 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 4월~5월에 실시된 조사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제시한 후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은 남편의 역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남편 역할 증가'의 응답 비율이 '부인 역할 증가'의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성별 분석의 결과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남편 역할 증가'라는 응답비율이 '부인 역할 증가'라는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이 남성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남성의 입장에서 남편의 역할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과의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이 감소했을 때, 자신의 역할이 증가된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노동시간이 감소한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역할분담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근시간이 감소한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역할분담을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筒井(2022)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가정 및 가족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가정생활이 단기적으로는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과 상반되는 결과로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과 같이 제도의 뒷받침 없이 개인의 재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노동조건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었을 때 의외로 개별가정이 그에 대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은 부부간 역할분담보다 더욱

명확하게 남편과 부인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남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통근시간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근시간이 감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입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결과로 통근시간의 변화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수진(2022)의 연구에서 일본의 20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텔레워크'의 방식을 경험한 비율이 20.1%, '유연근무'를 경험한 비율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외부의 사건으로 인한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등의 노동조건의 변화에 개별 가정이 대응하면서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및 정책 수립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일과 생활에 대한 의식변화와 부부간 역할분담과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얻어졌다. 남성이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경우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화없음 그룹에 속할 확률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이 일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경우에는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일을 중시하게 될 경우, 부부간 역할이 부인에게 더 많이 배분되는 관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남성 스스로 생활을 중시하게 되면서 가정 내에서의 남편 역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여성이 생활을 중시하면서 가정 내에서의 남편 역할이 증가한다는 점은 가정 내 역할분담은 부부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남편의 가사참여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는 최유정, 최미라와 최샛별(2019)의 연구결과처럼, 남편과 부인의 가정내 역할분담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일과 생활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였음이 밝혀졌는데 남성와 여성이 인식하는 '생활'의 범위가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남편이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을 경우에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분석결과는 남성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부인이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여성이 상정하고 있는 '생활(라이프)'의 범위보다 남성이 상정하고 있는 '생활(라이프)'의 범위가 넓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가정내 역할분담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생활(라이프)'의 영역에 대한 의미를 심도있게 파악해 보는 것도 추후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가정 및 가족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등의 변화가 가정내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보다 남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가 가정내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밝혀냈다.

다만,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한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등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시간이나 통근시간의 감소를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볼 것인가라는 점은 노동시장의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감소가 응답자 스스로 원한 상황인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강제적인 감소인지, 혹은 근무일수가 줄어든 결과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에 이용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전반의 상황 속에서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노동시간의 감소가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노동시장 요인으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일 가능성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육 및 교육 공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선택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자녀돌봄시간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셋째, 생활시간 영역을 다루는 연구에서 가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은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가 가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을 묶어서 하나의 문항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가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을 묶어서 분석하였고, 이로 인해 보다 세분화된 분석 및 해석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 변화,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변화에 대해서 조사대상자가 감소 및 증가라고 응답한 항목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가정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사항목,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정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변화양상의 추이를 도출해 내는 것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하나의 예로, 筒井(2022)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족의 건강관리라는 가사노동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실태와 문제를 가시화했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이름없는 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大和ハウス(2017)의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30가지의 집안일 항목에 대해서 가사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부인이 일상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가사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은 이

름없는 가사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름없는 가사'가 가사의 총량을 늘리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남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가사항목 등의 구체화를 통해 가정내 부부간 역할분담을 가시화하는 작업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Acknowledgements

These results are the result of a secondary analysis performed on raw data using data from (Survey on Changes in Attitudes and Behaviors in Daily Life under the Influence of Novel Coronavirus Infection, 2020, The 4th Survey on Changes in Attitudes and Behaviors in Daily Life under the Influence of Novel Coronavirus Infection, 2021) deposited by (Japanese Cabinet OfficeDs name) stored in the Center for Social Survey and Data Archive located at The University of Tokyo's Institute of Social Science

참고문헌

1) 김유경(2021). 코로나19 시대, 가정의 가사노동 양상.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1 추계학술 대회논문집. 67-75.
2) 손연정(2022). 유연근무제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코로나19 재택근로 확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2), 37-51.
3) 송혜림(2021). 코로나19 시대, 가사노동과 돌봄 변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1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3-29.
4) 안미영(2022). 코로나19 발생 이전 맞벌이 가구 여성의 가사와 돌봄 노동은 팬데믹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국사회복지학, 74(3), 145-170.
5) 이경숙・이지인・정영태(2020). 코로나19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 대구여성가족재단.
6) 이수진(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탐색-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실시된 일본 내각부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3), 87-106.
7) 이태・안준홍(2022).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변화. 여성연구, 115(4), 129-163.
8) 이현아・김주희(2021).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71-86.
9) 오유라・송운기・김성훈(2022). 코로나19 시기 기혼 근로여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영향 요인 분석. 사회과학논총, 38(2), 187-214.
10) 장진희(2021).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여성노동위기 대응과제. 월간 한국노총, 576, 13-14.
11) 장진희・박건・이동선(2022).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자녀돌봄공백과 직장내 불이익을 중심으로. 월간 한국노총, 581, 31.
12) 진미정・성미애・손서희・유재언・이재림・장영은(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13) 최유정・최미라・최샛별(2019). 가정내 역할 수행 및 돌봄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50(1), 1-28.
14)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 결과_보도자료, 통계청.
15)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2021). 직장인_코로나19 전후 변화.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 Content.asp?seqNo=1190에서 2022.12. 인출.
16) 허민숙(2022). 코로나19 시기의 가족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 NARS 현안분석 245호. 국회 입법조사처.
17) 허수연・김한성(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29.
18) 허수연(2008). 맞벌이 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19) 石橋澄子, 武田陸 & 谷口守(2021). COVID-19が子育て有職者のジェンダー・ギャップに及ぼした影響-緊急事態宣言前・中・後3断面での家事・育児時間に着目して. 都市計画論文集, 56(3), 641 -648.
20) 大久保敏弘(2020). 第2回テレワークに関する就業者実態調査報告書. NIRA総合研究開発機構. https:// www.nira.or.jp/paper/NIRA_Report_20200805.pdf에서 2022.12. 인출.
21) 筒井淳也(2022). コロナ下の家庭における生活の変化. 日本家政学会生活経営学部会夏セミナー資料集.
22) 大和ハウス(2017). 共働き夫婦の家事に関する意識調査第1回～家事への意識の違い編～. https://www.daiwahouse.co.jp/tryie/column/build/ dual_income/에서 2022.12. 인출.
23) 崔喜晶(2022). ポストコロナ時代の韓国家族研究の方向と課題. 日本家政学会家族関係学部会第42回家族関係学セミナー要旨集.
24) 内閣府(2021a). 令和 2 年度男女共同参画の視点から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拡大の影 響等に関する調査. https://www.gender.go.jp/kaigi/kento/covid-19/index.html에서 2022.12. 인출.
25) 内閣府(2021b). 令和3年度コロナ下の女性への影響と課

題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https://www.gender.go.jp/kaigi/kento/covid-19/siryo/pdf/post_honbun.pdf에서 2022.12. 인출.

26) 濱貴子, 松井三枝, 蝦名昂大, 佐藤邦子 & 石岡良子(2022). コロナ禍における家事と メンタルヘルスの 関係. 富山県立大学紀要, 32, 98-116.

27) 原美和子(2021). 新型コロナは私たちの暮らしや意識をどう変えた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 症に関する世論調査の結果から. 放送研究と調査, 71(6), 2-30.

28) 厚生労働省(2020). 2019年国民生活基礎調査の概況.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k-tyosa/k-tyosa19/dl/14.pdf에서 2023.02. 인출.

29) Panasonic Webmagazine(2022). コロナ禍で家事負担がアップ！それでも変わらない夫婦の家事分担比率. 「しない家事」へのニーズは過去3年で最高に. https://panasonic.jp/life/housework/100054.html에서 2022.09.14. 인출

30) Carlson, D. L., Petts, R. J. & Pepin, J. R.(2022). Changes in US parents' domestic labor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COVID-19 pandemic. Sociological inquiry, 92(3), 1217-1244.

31) Craig, L. & Churchill, B.(2021). Dual-earner parent couples' work and care during COVID-19. Gender, Work & Organization, 28, 66-79.

32) Del Boca, D., Oggero, N., Profeta, P. & Rossi, M.(2020). Women's and men's work, housework and childcare, before and during COVID-19.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8(4), 1001-1017.

33) Oreffice, S. & Quintana-Domeque, C.(2021). Gender inequality in COVID-19 times: Evidence from UK prolific participants. Journal of Demographic Economics, 87(2), 261-287.

34) Sevilla, A. & Smith, S.(2020). Baby steps: The gender division of childca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36, S169-S186.

35) UN Women(2020). "Whose time to care: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 during COVID-19" https://data.unwomen.org/sites/default/files/inline-files/Whose-time-to-care-brief_0.pdf.에서 2022.12. 인출.

36) Xue, B. & McMunn, A.(2021). Gender differences in unpaid care work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UK Covid-19 lockdown. PloS one, 16(3), e0247959.

37) Yerkes, M. A., André, S. C., Besamusca, J. W., Kruyen, P. M., Remery, C. L., van der Zwan, R., Beckers, D. G. & Geurts, S. A.(2020). 'Intelligent' lockdown, intelligent effects? Results from a survey on gender (in) equality in paid work, the division of childcare and household work, and quality of life among parents in the Netherland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PloS one, 15(11), e0242249.

38) Zamarro, G. & Prados, M. J.(2021). Gender differences in couples' division of childcare, work and mental health during COVID-19.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9(1), 11-40.

39) Zamberlan, A., Gioachin, F. & Gritti, D.(2021). Work less, help out more? The persistence of gender inequality in housework and childcare during UK COVID-19.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73, 100583.

■ 투 고 일 : 2022년 12월 26일
■ 심 사 일 : 2023년 01월 11일
■ 게 재 확 정 일 : 2023년 02월 14일